

나주시, 내년 본예산 1조107억 편성

전년보다 7.6% 증액 의회 제출 민생·미래성장동력 확보 중점 지방채 발행 없이 건전 재정 유지

나주시가 '민생 안정', '지방소멸 극복',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중점을 두고 1조107억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의회 제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9281억원, 특별회계 82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9396억원보다 7.6% (826억원) 증액했다.

수치상으로는 늘었으나 사용처가 특정한 국·도비 증가 때문에 가용재원은 올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최근 2년간 약 850억원이 감소한 데다 자체 수입 징수 또한 경기 침체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그럼에도 지방채 발행 없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 타당성, 효과성을 최우선

검토하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의 완성에 집중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 복지 증진, 소상공인·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배정했다.

주요 사업으로 노인 교육·이용권(13억원), 100세 안심경로당 운영(2억원), 50세 이상 대상 포진 접종비(1억원), 동부·중부·나주노인복지관 운영(24억원) 등 초고령사회 접어들어 지역사회 노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편성했다.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지원(2억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지원(5억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확대(75세~80세·3억원) 등 여성 진화 시책 예산도 눈에 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효자로 자리매김한 나주시 량산품권 발행 비용도 75억원을 책정했다.

또 지역 경제 근간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형 일자리 확대에 51억원을 반영했다.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나주형 신바람 활력 프로젝트' 예산안은 '청소년 100원 버스'(5억원), '공공 작은 결혼식'(4000만원), '0원 청년 임대주택'(20억원) 등이 대표적이

다. 여기에 저출생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 부부 검사·시술비, 출산전·후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59억원), 365일 24시간 보육시설 운영(4억원) 등 보육 인프라 예산도 빠짐없이 반영했다.

미래성장동력인 '관광 분야'는 '2026년 나주방문의 해 선포'(2억원), 금성관 보수정비(45억원), 나주밥상 지정·육성(2억원),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37억원), 역사문화권 정비 육성(39억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는 인공태양 공학·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등 국가 대형 연구시설 유치(2억원), 글로벌 나주 에너지포럼 개최(4억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22억원) 등에 힘쓴다.

나주시 2025년 본예산안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18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시민들에게 선보인 영산강 정원처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실질적인 발전과 성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연결강화 프로젝트 강좌 모습.

<담양군 제공>

담양군, 고립 청·중장년 사회 연결 사업 추진

10명 대상 2차 프로젝트 진행

담양군은 고립·은둔 위기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연결강화 2차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청년과 중장년 10명을 대상으로 2차 '모여라! 청·중장년' 사회적 연결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행복한 일상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반려 식물 만들기, 목공예, 반찬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을 6회에 걸쳐 제공

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들 프로젝트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기회를 갖는다.

담양군 주민복지과는 지난해 사회적 연결강화 프로젝트를 2회차 17회에 걸쳐 진행해 20명의 참여자 중 4명의 취업을 성공시켰다.

담양군 관계자는 "위기 청년과 중장년의 사회 진입을 위해서는 지역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기 대상자를 발굴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2학기 최대 200만원 지원

장성군수의 핵심 공약인 '지역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이 2학기에도 지속된다.

장성군은 '2024년도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등록금 일부담액을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 복지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생 1명당 누적 8회까지 지원하며 장성군이 지난해부터 전남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보호자가 공고일(11일) 기준 3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수혜 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C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고, 30세 이하(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 국내대학 재학생이어야 한다.

여기에 지난 5-6월, 8-9월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2학기분을 신청한 학생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12월2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성군은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내년 1월 초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장성군 평생교육센터(061-390-8572)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함평 나산면 공강아지농장 농장주인 손영일 대표 부부와 반려견 짘짘이와 만두.

<함평군 제공>

함평 공강아지농장, 치유농업 대회 우수상

동물 교감 통한 심리 치유 호평

함평에서 강아지와 함께하는 치유농업농장이 농촌진흥청 주최 대회에서 우수상을 안았다.

21일 함평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제20회 생활원에 치유농업 중앙 경진대회에서 나산면의 '공강아지농장'이 우수상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우수 프로그램 발굴과 치유농업 가치 전파를 위해 대회를 열고 있다.

농장 환경과 프로그램 구성과 완성도, 치유 효과를 평가하는 가운데 공강아지농장은 전 분야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

공강아지농장의 손영일 대표는 치유농업사 자

격을 취득하고 사회복지 유관기관과 함께 동물 교감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동물과의 교감으로 참여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손 대표는 "운영한 지 1년 남짓한 신생 농장임에도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매개 치유 효과를 알리고 희망과 치유 손길을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함평군의 우수한 치유농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치유농업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팍' 연매출 30억원 목표 조기 달성

화순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팍'이 올해 매출 목표 30억원을 조기에 달성했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개설된 화순팍은 지난해 매출 16억 원을 올린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고인 3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화순팍이 온오프라인에서 명절 이벤트, 새봄맞이, 축제 연계, 여름 이벤트, 우체국 브랜드관 등 시기별 이벤트와 소셜미디어(SNS) 홍보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군의 설명이다.

군은 농특산물인 미니파프리카, 복숭아, 사인

머스켓, 토마토, 한우, 돼지고기, 장어, 보리굴비, 기장떡, 화순 쌀 등이 고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밝혔다. 군은 작년까지 위탁 운영했던 화순팍을 올해부터 직영으로 전환했다.

화순팍은 연 매출 30억원 달성 기념으로 오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연말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고객들에게 전 상품 30% 할인 쿠폰(최대 5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회원에게 2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군, 광주전남 국가암관리 우수기관 선정

장흥군이 '2024년 광주전남 암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

암관리사업 평가대회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전남 지역암센터가 주관했다. 평가는 광주시 5개구와 전남 22개 시군 보건소가 제출한 암관리사업 수행에 관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장흥군은 국가암검진사업분야에서 '암검진을 가까이, 암예방이 더 가까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암검진 실천 분위기 조성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들의 검진 동



행서비스 및 유관기관의 연계체계 강화를 통한 검진 수검률 향상도 긍정적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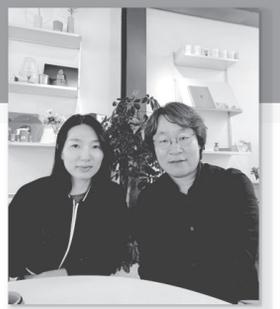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